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클라우디오 파스트로(Claudio Pasto, 1948- ),  
1988년, 브라질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마르 1,40-42)

[제1독서]..... 레위 13,1-2.44-46

[화답송] ..... 시편 32(31),1-2.5.11  
(◎ 7 참조)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제2독서]..... 1코린 10,31-11,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음] .....마르 1,40-45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59] 주께선 나의 피난처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169] 사랑의 성사
  - 파견성가: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때에 <sup>40</sup>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sup>41</sup>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sup>42</sup>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sup>43</sup>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sup>44</sup>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sup>45</sup>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A leper came to Jesus and kneeling down begged him and said,  
“If you wish, you can make me clean.”

Moved with pity, he stretched out his hand, touched him, and said to him,  
“I do will it. Be made clean.”

The leprosy left him immediately, and he was made clean.

Then, warning the him sternly, he dismissed him at once.

He said to him, “See that you tell no one anything,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for your cleansing what Moses prescribed; that will be proof for them.”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publicize the whole matter.

He spread the report abroad so that it was impossible for Jesus to enter a town openly.

He remained outside in deserted places, and people kept coming to him from everywhere.

## 사순 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사순’(四旬)은 본디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 숫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참조), 엘리야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다(1열왕 19,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2 참조).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이 사순 시기 동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 묵상

오늘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 환자를 가장 무겁게 억압하던 것은 가족과도 격리되어 살아야 한다는 지독한 소외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하느님에게서마저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입니다.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귀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 생명, 사랑, 희망, 지혜, 인내, 그 밖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귀한 가치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도 이런 귀한 것을 많이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비록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지니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용기, 추진력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지닌 귀한 가치,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는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소외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닌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잘 가꾸어 나가도록 그들을 따스하게 배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목요일에는 금육과 단식을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한다.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사순 시기 동안 거행하는 전례는 신자들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은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뜻을 새기고자 한다.

## 2월 11일 세계 병자의 날

## 2월 14일 재의 수요일

교회는 해마다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고 있다. 이는 프랑스 루르드의 성모 발현에서 비롯되었다. 성모님께서는 1858년 2월 11일부터 루르드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2년부터 해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이 발현 첫날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도록 하였다. 이날 교회는 병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병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인도 함께 기억하며 병자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책임감을 다지도록 기도한다.

제26차 세계 병자의 날

**“교회는 병자들의 어머니,  
자애와 연민 가득한 주님의 시선을 병자에게...”**

교회는 주님의 명령(루카 9,2-6; 마태 10,1-8; 마르 6,7-13 참조)에 충실하게, 그리고 교회의 창설자시요 스승이신 주님의 탁월한 모범에 따라, 병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고, 모든 눈물을 씻어 줄 하느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표징으로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모님처럼 제자들도 서로를 돌볼 뿐 아니라 그 너머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예수님의 성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은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모든 이를 향해야 합니다. 단지 그들이 인격체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고,  
모든 눈물을 씻어 줄 하느님 나라의 생명의 표징으로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병자들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곤경에 빠진 사람들과 병자들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병자들을 위한 일련의 감동적 활동으로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께서는 교회에게 자신의 치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 16,17-18).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베드로(사도 3,4-8 참조)와 바오로(사도 14,8-11 참조)의 치유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예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애와 연민 가득한 주님의 시선을 병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성 질환이나 중증 장애에 시달리는 자녀, 부모 또는 친척을 돌보는 많은 가정들의 따뜻한 사랑과 인내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가정들이 보여 주는 그러한 돌봄은 인간 사랑의 특별한 증거입니다. 적절한 정책으로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제들, 봉헌 생활자들, 자원봉사자들, 가정들 그리고 병자를 돌보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교회 사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날마다 수행하는 봉사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책임의 공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26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 중)



지난 해 본당 재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2월 14일)부터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슬픔과 참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13,19 참조) 이 재의 예식에서는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재를 신자들의 이마나 머리에 얹음으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 줍니다.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킵니다.

### 병자를 위한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아무)의 병을 낮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 ◎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8년 사순 시기 담화

##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 갈 것이다.”(마태 24,12)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파스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온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 갈 것이다”(마태 24,12).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이는 주님의 수난이 시작된 예루살렘 올리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서는 큰 환난을 예언하시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부딪히게 될 상황, 곧 커다란 시련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의 핵심인 사랑이 많은 이의 마음속에서 식어 가는 상황을 묘사하십니다.

### 거짓 예언자

복음 말씀을 경청하고 그와 같은 거짓 예언자가 가장한 모습을 깨닫도록 노력합시다. 거짓 예언자들은 “뱀을 부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히 움직여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순간의 쾌락을 참 행복으로 잘못 알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단지 이윤과 하찮은 이득에 매달리는 노예로 만드는 부의 환상에 도취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믿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외로움에 갇히고 마는지요! …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이러한 거짓 예언자의 거짓말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요청받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속에 선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에게서 오고 진실로 우리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차가운 마음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징표들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을 파괴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1티모 6,10)인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곧이어 하느님과 그분의 평화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과 성사에서 찾을 수 있는 위안보다는 스스로 황폐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에 위협이 되는 사람, 곧 태아, 노약자, 이주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 또는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피조물 자체가 이처럼 식어 가는 사랑에 대한

침묵의 증인입니다. 지구는 부주의 또는 사리사욕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병들고 있습니다. 바다 또한 오염되어 있으며, 이 바다는 강제 이주에 따른 난파선의 수많은 희생자들의 유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창조된 하늘은 죽음의 무기들로 찢기고 있습니다.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어머니이자 스승인 교회는 진실이라는 쓴 약과 더불어 사순 시기에 기도와 자선과 단식이라는 달콤한 치료약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침으로써, 우리 마음에 숨겨진 거짓말과 자기기만의 형태를 근절하고 그런 다음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선’은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우리의 이웃을 형제자매로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은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선이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친교의 생생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순 시기 동안 많은 단체가 고통받는 교회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바칠 때에 더욱 적절합니다.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에, 우리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돌보시는 하느님 섭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단식’은 폭력으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을 완화시켜 줍니다.

단식은 우리를 누그러뜨리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한편, 단식은 궁핍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견뎌야만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합니다. 다른 한편, 단식은 하느님 안의 생명에 대한 우리 자신의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표현합니다. 단식은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합니다. 단식은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단식은 하느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 부활 시기의 불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선과 단식과 기도를 이어 나가며 사순 시기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 또다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체 조배와 함께 화해의

성사를 거행하도록 초대하는 “주님을 위한 24시간”은 그와 같은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제130[129]편 4절 말씀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에서 감도 받아, 2018년 3월 9일 금요일부터 3월 10일 토요일까지 “주님을 위한 24시간”이 진행될 것입니다. 각 교구에서 적어도 하나의 성당은 24시간 계속해서 문을 열어 놓고 성체 조배와 고해성사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파스카 성야 동안, 부활초로 감동적인 빛의 예식이 다시 한번 거행될 것입니다. “새로운 불”에서 나온 이 빛은 서서히 어두움을 이기고 전례에 참여한 회중을 밝힐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모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경험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 식탁에서 양분을 얻어,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 희망, 사랑으로 불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제 기도를 약속드리며, 여러분께 저의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느 날 저녁 프란치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 보았더니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너무 추우니 프란치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가 일어나보니 그 환자는 온 데 간 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곧 모든 것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평화의 기도' 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위한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부터 본당 자녀들의 사제와 수도 성소 그리고 결혼 성소를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 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미사 때 특별 지향으로 행해집니다.

- ▷ 첫 미사 : 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 ▷ 문의 : 김만식 재권 요셉 (703)403-1185

**구역 임원 교육**



2월 구역임원 교육이 지난 4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33명의 구역임원 및 구역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인현 주임신부는 “우리 삶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며 때론 욕심 때문에 고통이 초래되지만, 가장 큰 고통을 이겨 내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청하자”고 말했다. 허전 베네딕토 사도회장은 “우리의 봉사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봉사임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역담당 부회장인 서경원 마르티노 형제의 사회로 장터 한마당을 포함한 구역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18년도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안내**

- ▷ 교육 일정 : 2018년 3월 6일 - 6월 8일까지
- ▷ 접수 : 2월 18일부터 (8시, 10시 미사 후)
- ▷ 과목 : 컴퓨터 기초(기초, 워드, 인터넷), 컴퓨터 중급, 컴퓨터 고급(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미술(데생), 생활영어, 손뜨개, 시민권 준비반, 동양화(수묵화), 문예창작교실, 수지요법(초급, 중급), 합창교실, 기타(Guitar)교실, 한국무용(초급, 중급), 장구(초급, 중급, 고급), 색소폰, 스트레칭 요가, 라인댄스, 키보드(Keyboard)
- ▷ 개강일 : 3월 6일(화) 오전 9:20
- ▷ 대상 : 전 교우 및 일반인(20세 이상)
- ▷ 등록금 : \$50 (전 과목), 점심 제공
- ▷ 문의 : 김명희 율리아나 교장 (703)217-2775

Religious Studies

# ASH WEDNESDAY

February 14, 2018



Ash Wednesday is a Catholic holiday celebrating the first day of Lent, which is forty-six days before Easter.

Roman Catholic churches of the Latin Rite use this service to prepare church members to better appreciate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through self-examination, repentance, prayer, fasting, and self-denial. Ashes from the burned palms of the preceding year's Palm Sunday are blessed. With these ashes, the priest marks a cross on the foreheads of worshipers, saying, *"Remember, man, that dust thou art, and unto dust thou shalt return"* (Genesis 3:19). Besides showing sorrow for their sins, those who honor Ash Wednesday add an additional meaning: the need to prepare for a holy death.

**WORD LIST**

Ash Wednesday, Ashes, Easter, Forty, Holy Triduum, Last Supper, passion, purple, Sacrifice, Stations of the Cross

**ACROSS**

- 2 An act that shows how much we love God by putting others before ourselves
- 4 Placed on forehead on first day of Lent
- 6 The prayer which follows Jesus on the way to his death-4 words
- 8 The final three days of Lent-2 words
- 10 Lent ends with this great celebration

**DOWN**

- 1 A word that means the suffering and death of Jesus
- 3 The day lent begins -2 words
- 5 Number of days in Lent
- 7 Liturgical color of Lenten season
- 9 Jesus gave us the Eucharist at this event -2 words

## Youth Liturgy Service's Bowling Outing



Students from the Liturgy Service had a group outing at the Bowlero Centreville on Sunday, February 4<sup>th</sup> to build unity and promote Youth Liturgy Service.

Youth Liturgy Service is dedicated to serving God. Students are very excited and dedicated to serve during the Student Mass every Sunday. Students serve during the Mass by reading the scriptures, commentating the order of Mass, and ushering. It is a great opportunity to become a part of the Mass celebration. Join us and experience the joy of serving during Mass!

### Join Our Team



Youth Liturgy Service is open to anyone attending Parish Sunday School from age group 6-12<sup>th</sup> grades. Please contact Parish Sunday school office or **Mr. John Seok** to join.

✉ aranghyunbin@gmail.com  
☎ 703-581-3719

Volunteer hours can be approved by submitting documents to Mr. Seok.

### ANNOUNCEMENT

**1. 2018 Sacrament of Confirmation Class for Children**

- **Registration :** Sundays, Feb. 4 - Mar. 4, from 10am - 1:30pm (No Service on Feb. 18),
- **Location :** Sunday School Office (Hasang Building)
- **Candidates :** 7<sup>th</sup> grade and up (Baptized & Received First Communion)
- **1st Day of Class :** Wed., Mar. 7, 7:45pm-9pm, Room #110 (Hasang Building)
- More information will be sent out via email.

**2. Ash Wednesday Mass on Feb. 14, 11:00am & 8pm**

**3. No Sunday School on Feb. 18**

**4. Junior Legion of Mary**

- **Who :** K - 12<sup>th</sup> grade students
- **For more information,** talk to your child's Sunday School Teachers / Staffs.

**1 재의 수요일 예절 및 미사**

- 일시 : 2월 14일(수) 오전 11시, 오후 8시 (단식과 금음)
- 작년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성당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받습니다. 2018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46,000입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단체장 회의**

- 일시 : 2월 11일(일) 오전 11:30(B-1,2)

**4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일시 : 2월 11일(일) 10시 미사 중
- 결혼 25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이하신 부부들은 미사 후 축하식이 있으니 참석 바랍니다. (A-1,2)

**5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2월 11일(일) 오후 1시(B-3,4)

**6 주일학교 교사회**

- 일시 : 2월 11일(일) 오후 1시(교무실)

**7 바오로 총회**

- 일시 : 2월 11일(일) 오전 11:30(B-1,2)

**8 조상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2월 16일(금) 오후 8시, 위령 미사 신청 : 사무실

**9 사도임원 회의**

- 일시 : 2월 15일(목) 오후 8시(B-1,2)

**10 제77차 종합교리 및 참고**

- 종합교리 : 2월 20일(화) - 2월 21일(수) 오후 8시(하상관)
- 참고 : 2월 21일(목) 오후 8시(하상관)
- 영세식-견진성사 : 2월 23일(금) 미사 중(오후 7:30, 성당)
- 세례자 환영식 : 2월 25일(일) 오전 11:30(B-1,2)

**11 제78차 예비신자 모집**

- 입학식 : 3월 4일(일)
- 등록 : 매 주일 친교실 선교부 테이블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원철희 토마스 (703)203-0332, 사무실

**12 2018년 학생 견진 성사반 등록**

- 대상 : 세례와 첫 영성체를 마친 7학년 이상 학생
- 등록 : 2월 4일-3월 4일,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 문의 : 윤정 보일 클라라 (703) 371-3589

**13 2018 WorkCamp**

- 일정 : 2018년 6월 23일(토) - 6월 29일(금)
- 대상 : 9학년 - 12학년 / 참가비 : \$475(등록비 선납)
- 신청 : 2월 11일까지, 친교실

**14 2018년 페루 뿌랄파 단기선교 봉사자 모집**

- 선교 일정 : 2018년 6월 21일(목) - 6월 29일(금) 7박 8일
- 모집 인원 : 25명(스페니쉬 가능자 우선)
- 모집 대상 : 18세 이상의 의료분야 종사자, 미용사, 대학생 및 자원팀으로 봉사 가능한 교우분들
- 문의 : 이영옥 로사 (703)927-0404

**15 발렌타인 데이 꽃다발 주문 (픽업 배달 가능)**

- 신청 : 미사 후 친교실 / 한승진 아네스(703) 470-2171

**16 하상회 모임**

- 일시 : 2월 18일(일) 오전 11:30(B-3,4)

**17 안나회 모임**

- 일시 : 2월 18일(일) 오전 11:30(A-1,2,3,4)

**1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2월 18일(일) 오전 11:40(하상관#4,5)

**19 베드로회 정기모임**

- 일시 : 2월 18일(일) 오후 1시(B-1,2)

**20 하상 성인학교 점심 봉사자 모집**

- 문의 : 김명희 올리아나 교장 (703)217-2775

**21 주니어 레지오 단원 모집**

- 레지오 마리아가 주니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봉사 활동을 통한 자기 성화를 통해 성모님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킨더가든-12학년 남·녀 학생
- 문의 : 주일학교 담임 또는 교무실

**22 성지순례 -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 그리스)**

- 일시 : 2018년 10월 5일(금) - 10월 20일(토)
- 재속 프란치스코회 주최 (조상연 스테파노 수사신부님 인솔)
- 문의 : 한 데레사 (703)425-9445, (703)674-6081

**22 바오로회 공지사항**

- 1차 총회: 2월 11일 오후 6시
- 자매 모임: 매월 네번째 주 금요일(2월 23일) 오후 8시 (자매 모임에서는 기도와 말씀 나눔,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 문의 : 이성근 에레미아 (703)627-1932, sleeh@yahoo.com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월 11일(일)	연중 제6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1,2), ME 혼인 갱신식 축하식(오전 11:30, A-1,2), 꼬미시움(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회(오후 1시), 바오로 총회(오후 5시)
12일(월)	연중 제6주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3일(화)	연중 제6주일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바오로 기획부 모임(오후 8시)
14일(수)	재의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재의 수요일 미사(오전 11시, 오후 8시)
15일(목)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사도임원 회의(오후 8시, B-1,2)
16일(금)	설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8시)
17일(토)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아침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CLC 신년모임(오후 1시-5시, 성당)
2월 18일(일)	사순 제1주일	십자가의 길(오전 9:15), 하상회 모임(오전 11:30, B-3,4), 안나회 모임(오전 11:30, A-1,2,3,4), 꾸리아(오전 11:40, 하상관 #4), 베드로 모임(오후 1시, B-1,2)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 시기 동안 매 주일 오전 9시 15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시고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사순 제1주일 : 꾸르실로
- 사순 제2주일 : 레지오 마리아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신자,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양보합니다.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9:5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6주간 : 1사무 1-7 1-4, 루카 15-16

**KACM TV 하이라이트**

2월 15일(목) 오후 5:00-6:00	
2월 16일(금) 오후 8:00-9:00	
2월 18일(일) 오전 6:00-7:00	

- 미니 다큐 '나눔' : 20여년 동안 마지막 가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김정옥 헬레나
- 황창연 신부와 함께 하는 성경여행 (12): 마카베오 형제의 항쟁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2월 4일(연중 제5주일)

주일헌금	\$ 7,575.00
교무금	\$ 6,8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2,890.00
특별헌금	\$ 0.00
2차헌금	\$ 2,298.00
<b>합계</b>	<b>\$ 19,623.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영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명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기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사아), 안순경(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재(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강재이(카타리나), 김 루시아, 백명수(마리아), 고필순(렘마), 김정희(요셉)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타매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 이사아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립(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현)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b>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메디케어</b> 홍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b>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시몽사진</b>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b>SEM Education</b>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양 요한</b> 동양화 표구 전문 703-628-0114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Kim Chiropractic &amp; Rehab</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